

**[부록 1]**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언론기사 모음**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한국 측 경제계 인사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측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회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 韓日 경제인 279명 참석 “손잡고 위기 극복”

한·일 재계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계 교류 행사를 열었다. 올해 54번째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양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다.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양국에서 279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170명, 일본에선 109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일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한국 측 행사를 주최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몇 년간 복합적인 정치, 외교 갈등이 큰 교훈

### 尹정부 출범후 첫 대규모 행사 “양국 관계개선 적극 협력” 성명

이 돼 (한·일 기업가들 사이에는) 시간 낭비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겼다”며 “이제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취임 축하를 위해 예방했을 때 윤 대통령이 ‘지금엔 한·일 관계가 전후 가장 냉랭한 시기지만 가장 관계가 좋았던 시기로 되돌려 보자’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양국 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윤 회장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 정부관(차관급),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일 경제계 교류는 올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2018년부터 중단된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고, 무역협회도 6월 3년 만에 ‘도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 7월에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단이 방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기우 기자

# 한일 최고경영자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논의

서울 도쿄 연결 온라인 경제인 회의  
김윤 회장 “공존공영 위해 손잡아야”

한일경제협회는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하는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처음 열린 뒤 매년 회의를 이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부터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가격 급등, 기후변화 대응 등

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 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고 쉽지 않다”며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경제인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둬 왔다”면서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mailto:balgun@donga.com)

(13.7\*10.2)cm

2022년 05월 31일  
36면 (사설/칼럼)

## 매일경제

### 윤정부 첫 한일경제인회의, 3년간 악화된 교역에 물꼬 트길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30일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 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양국 교역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회의는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처럼 지난 3년간 경색됐던 양국 경제 교류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큰 진전이다.

한일 경제인들은 1969년부터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 위기 등에도 중단 없이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 관계가 냉각되며 실질 협력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회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 등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

범으로 한일 관계 복원은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 선언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 전군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소부장에 대한 대일 수입 의존도 하락은 미미한 가운데 양국 교역규모는 20조원(10%)가량 줄어들었다. 양국이 승자 없는 전쟁을 3년간 이어온 셈이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이날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했는데 옳은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의 교류 복원은 더욱 절실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해 최악의 상태에 빠진 양국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양국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가 정제된 교역의 물꼬를 트고,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18.2\*9.7)cm





30일 한일경제협회는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었다. 왼쪽부터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김희용 TYM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김호영 기자>

## 韓日재계 “탄소중립·고령화 해법 함께 찾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 명이 양국의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30일 제54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호텔오쿠라도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올해는 한일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기업인이 대규모로 만난 자리이다 보니,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일 간 관계 경색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올해는 양국 모두 교류·공존·신뢰 등을 강조하며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일·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이 양국 단장으로 참여했다.

김윤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래 번영을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

새 정부 첫 한일경제인 회의  
서울·도쿄서 온오프라인 개최  
양국 기업인 260여명 참석

“무비자 복원해 인적교류 확대”

탕으로 무역·산업·투자·금융·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양국이 고령화, 저출산,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회장은 회의 휴식 시간 중 매일경제와 만나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비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인적교류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만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용되던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은 2020년 3월부터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사사키 회장도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사키 회장은 “양국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며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 배우 송강호와 함께 만든 영화 ‘브로커’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문화 교류의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이런 교류가 산업 분야에서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163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일경제인회의는 경제 연계 확대, 상호 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3년 한국에서 열린다.

이충복·이윤재 기자

(17.9\*24.4)cm

## 尹정부 출범 후 첫 한일경제인회의 열려

# 양국 '경제공동체' 강조... 관계 회복 포커스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경제인회의인 한일경제인회의가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미쓰비시상사 등 한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260여명은 30일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과 도쿄를 연결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도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밝혔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이 30일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민경 기자 eyes00@

“정부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크게 기대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대사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

(11.6\*16.0)cm

# “한일 관계개선 힘 모으자” 구자열, 민관협의체 제안

〈무역협회장〉

## 한일경제인회의 연설

양국간 기업 비즈니스 애로 공유  
무비자방문제 조속 복원도 촉구

구자열(사진) 한국무역협회장이 한일 양국의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구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협회 주최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민관 협의체가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비자 방문 제도의 조속한 복원과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산업 협력 확대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기업 대



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여전히 한일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11.6×16.2)cm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웅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종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방인권 기자 bink7119@

## 한일 양국 기업 협력해 위기 극복... 출발점은 '역지사지'

### 제54차 한일 경제인 회의

#### 양국 새정부 출범후 첫 회의 기대감 경제연계 확대·교류 증진 노력 합의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역지사지'.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30일 열린 제54차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입을 모아 강조한 키워드다. 글로벌 통상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각국 정부가 서로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경제인들의 바람이 담긴 단어라는 분석이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온 라인과 동시에 한일 경제인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경제인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남달랐다. 새 정부가 미국과 동맹

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69년 시작된 한일 경제인 회의는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여러 어려움에도 교류 등불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매년 거르지 않고 열렸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 모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최근 정부 측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린 지난달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경제인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제재 등으로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양국 협력과 연계가 위기 극복에 힘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진행된 신산업무역 회의에서 나온 '역지사지'·'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제언을 바탕으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탄소중립과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에 합

계 대응하는 동시에 제3국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과거사를 둘러싼 복잡한 현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고 한일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 과제 해결과 미래 번영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 경제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협력부터 하자"고 덧붙였다.

일본측 회장을 맡고 있는 사사키 미키오 전 미쓰비시 회장은 "한일관계 개선 기미가 보이면서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기대를 표한다"며 "협회 활동의 3대 기둥인 경제·인재·문화 교류 사업을 지속하고 청소년·지역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연계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 역시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를 풀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강창일 주일 한국 특명전권대사는 "한일은 세계경제발전

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이웃으로 한일 경제협력에 정부가 발목 잡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양국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협력 방향으로 △통상협력 체제를 통한 다자이슈 대응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와타 가즈키가 일본 경제산업대신 정부관은 "건전한 한일 관계는 국제질서 구축과 세계 평화 번영에 불가피하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좋은 관계로 되돌리고자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은 조선 시대 200년간 동안 이어진 '조선통신사'와 양국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세계 공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제영 기자 kyung@

(22.6·22.7)cm



**서울·도쿄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 오쿠라에서 각각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이  
회령 세아제강 부회장(왼쪽부터)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  
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등이 롯데호텔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17.3\*9.3)cm

# “한일 인재 교류 플랫폼 만들자”

## 한일경제인회의 온라인 개최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미쓰비시상사 등 한일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국제 패러다임 변화에 함께 대응하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한일경제협회장을 맡은 김윤삼양홀딩스 회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주요 관계자들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모여 온라인으로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를 진행했다. 일본 측에선 일한경제협회장을 맡은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을 비롯해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미토모화학 사장, 최세환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일본 오키다호텔에서 모여 온라인

으로 참석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오카 스미토모 상사 고문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거쳐 공동성명으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국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이와타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기업이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13.6\*12.7)cm



### 머리 맞댄 한일 경제인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측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취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6\*12.7)cm



# 日本経済新聞

## 日韓経済人会議「エネルギー安保で協力」 都内で会合

経済 + フォローする

2022年5月30日 20:36

保存

📄 📧 📱 🐦 🌐 📌



会議の冒頭であいさつした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会長(30日、東京都港区)

日本と韓国の企業トップらが集まる日韓経済人会議は30日の都内での会合で、世界情勢をふまえ「エネルギー安全保障などで積極的に力を合わせる」との共同声明を採択した。日韓関係の改善や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の収束後を見すえて「政府間の対話が進展し、自由に経済活動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と訴えた。

韓国では10日に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就任した。冷え込む日韓関係について、共同声明は「両国間で『これ以上の関係悪化は放置できない』という認識の共有とともに、関係改善に向けた動きが出てきたことを歓迎する」と表明した。

会議の冒頭であいさつした日韓経済協会の会長を務める佐々木幹夫・三菱商事元会長は「両国の経済交流の拡大や協業は両国の結びつきを一層強くする。葛藤を乗り越え、互いに協力することで新たな成果につながる」と述べた。

日韓経済人会議は年1回、両国で交互に開催している。新型コロナの影響で、今回はオンライン形式で開いた。2023年は韓国での開催を予定する。

### 개회 인사하는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회장 (30일, 도쿄도 미나토구)

일본과 한국의 기업 총수들이 모인 한일경제인회의는 30일 도내에서의 회합에서, 세계정세를 근거로 「에너지 안전 보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일관계 개선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수습 이후를 내다보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에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대해 공동성명은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는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회 인사에서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맡은 사사키 미키오・미츠비시 상사 전 회장은 「양국 경제교류의 확대와 협업은 양국의 결합을 한층 강하게 한다.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에는 온라인 형식으로 열었다. 2023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日韓経済人会議」でスクリーンに映ったソウル会場の出席者と記念撮影する東京会場の出席者＝30日午後、東京銀座区

日韓両国の企業経営者らが経済連携を協議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30日、オンラインで開催された。韓国大統領に日米との関係を重視する尹錥悦（ユン・ソンニョル）氏が就任し、議論の中でも両国経済界から期待感を込めた発言が相次いだ。ただ、いわゆる徴用工訴訟問題の解決には程遠い状況ながら日本側から同問題を強く指摘する声は上がらなかった。問題の解決なしには日韓の真の経済交流の進展は考えにくく、日本の経済界側の厳しい姿勢が求められる。

会議では、エネルギーや少子高齢化などで「両国の協力、分担が一層重要になる」とし、経済連携の拡大などを内容とする共同声明を採択し、閉幕した。

会議の冒頭、日本側の佐々木幹夫団長（三菱商事元会長）は、新政権誕生により「政府間の対話が進展し、経済人が安心して自由に経済活動ができることを大いに期待している」と表明。韓国側の金欽（キム・ユン）団

長（三菱ホールディングス会長）は「この数年間の複雑な政治外交対立は大きな教訓になった。これからは互いが深い信頼に基づき貿易産業投資など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同会議は1969年から毎年、日韓が交互に会場となって開催しており今回が54回目。ただ、今年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のため、昨年に続いて都内とソウルの会場を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実施した。

日韓関係は経済面でも厳しい局面が続く。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下の2018年、徴用工問題で韓国最高裁が「司法の独立」を盾とし、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急速に関係が冷え込み、今もその流れが続く。昨年9月には三菱重工業の資産に対し、韓国の裁判所が売却命令を出したほか、関連して今年4月にも原告側が韓国内で差し押さえた同社の資産である特許権2件の売却命令を裁判所が出すなど、足元でも課題を抱えたままだ。

政権交代を受け、こうした問題の解決が図られなければ、真の経済交流が進むどころか、むしろ悪化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尹政権はどうか取りを固めるのか、その本気度が問われている。（那須慎一）

## 韓日経済協定 「徴用工」の壁 経済人 会議、問題解決 논의 없이

韓日 両国 企業 経営者들이 경제연계를 협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미일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논의에서도 양국 경제계의 기대감을 담은 발언이 이어졌다. 다만,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문제해결 없이는 한일 간의 진정한 경제교류의 진전은 생각하기 어렵다. 일본 경제계 측의 엄격한 자세가 요구된다.

회의에서는 에너지와 저출산 고령화 등에서 「양국의 협력, 분담이 더욱 중요 해진다」며 경제연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개회 인사에서 일본 측의 사사키 미키오 단장(미츠비시상사 전 회장)은 신정권 탄생으로 「정부 간의 대화가 진전되고,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표명. 한국 측 김윤 단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복잡한 정치외교 갈등은 큰 교훈이 되었다. 이제는 서로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 회의는 1969년부터 매년 한일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이 54회째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도쿄도내와 서울 간의 행사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실시했다.

한일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어려운 국면이 이어진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2018년 징용공 문제로 한국 대법원이 「사법 독립」을 방패 삼아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면서 급속히 관계가 냉각되었고 지금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렸고, 관련해 올 4월에도 원고 측이 한국 내에서 압류한 동 회사의 자산인 특허권 2건의 매각 명령을 법원이 내리는 등 당장의 과제가 놓여있는 상태이다.

정권교체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경제교류가 진행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윤 정권은 어떻게 풀어 나아갈 것인지 그 진정성을 알고 싶다



## 「日韓経済人会議」両国関係の改善 期待する声相次ぐ

2022年5月30日 19時35分

日韓関係

日韓両国の経営トップによる「日韓経済人会議」が開かれ、出席者からは韓国の新政権の発足をきっかけに両国関係の改善を期待する声が続々相次ぎました。

こととして54回目となる「日韓経済人会議」は、両国の経済交流の拡大を目指して1969年に始まって以降、1度も中断することなく開かれています。

オンラインで開かれた会議は東京とソウルに会場が設けられ、およそ280人が出席しました。



会議では、日本側の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が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が就任したことを受けて「政府間の対話が進展し、安心して経済活動が行えるよう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述べました。

## 「日韓経済人会議」 両国関係の改善 期待する声相次ぐ

2022年 5月 30日 19時 35分

日韓 両国 経営TOPが 参加する 日韓 経済人会議が 開かれた。 参加者からは 韓国 の 新 政府 출범を 機会に 両国 関係 改善を 期待する 声が続々 相次いだ。

올해로 54번째가 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 교류의 확대를 목표로 1969년에 시작된 이후, 단 한번도 중단 없이 열리고 있다.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는 도쿄와 서울에 행사장이 마련되어 28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일본측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これに対して韓国側の韓日経済協会のキム・ユン会長は「歴史認識をめぐる問題など長い対立は残るが、日韓両国は共存共栄で手を携える必要がある」と応じました。

出席者からは両国関係の改善を期待する声が相次ぎ、両国間で深まる映画や音楽など文化交流の成果を産業面にも広げるべきだといった意見や半導体など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じん化や脱炭素などで連携すべきという指摘が出ていました。

こうした議論を踏まえ、会議では両国関係の改善や経済連携の拡大を進めるべきだとの共同声明が採択されました。

※キム・ユン（金※ユン「金」へんに「允」）

이에 대해 한국 측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은 역사 인식을 둘러싼 문제 등 긴 대립은 남지만, 한일 양국은 상생공영으로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양국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는 소리가 잇따르면서 양국 간에 깊어지는 영화나 음악 등 문화교류의 성과를 산업 면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도체 등 공급망의 강화, 탈탄소 등에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회의에서는 양국 관계의 개선과 경제 제휴의 확대를 진행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 岩田経済産業大臣政務官が第54回日韓経済人会議に出席しました

2022年5月30日

▶ 対外経済

5月30日（月曜日）、岩田経済産業大臣政務官は、「第54回日韓経済人会議」に出席し、日本政府を代表して挨拶を行いました。

5月30日（月曜日）、岩田経済産業大臣政務官は、（一社）日韓経済協会及び（社）韓日経済協会等が主催した「第54回日韓経済人会議」において来賓挨拶を行いました。

岩田政務官は、緊密な日韓経済関係の維持には日韓の経済人による様々な事業での連携が期待されること、また、現下の厳しい日韓関係を踏まえ、日本政府は、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韓国大統領をはじめ新政権と緊密に意思疎通していくこと等を述べました。



### 担当

通商政策局韓国室長 出雲  
担当者：川上、石丸  
電話：03-3501-1511（内線3022）  
03-3501-1566（直通）  
03-3501-6024（FAX）

### 이와타 경제산업대신 정무관,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2022년 5월 30일

5월 30일(월요일), 이와타 경제산업장관 정무관은, (일사)일한경제협회 및 (사)한일경제협회 등이 주최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내빈인사를 했다.

이와타 정무관은 긴밀한 한일 경제관계 유지에는 한일 경제인에 의한 다양한 사업에서의 연계가 기대된다는 점, 또한 현재의 어려운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신정권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 등을 말했다.

# 朝鮮日報

## 韓日 경제인 279명 참석 “손잡고 위기 극복”

尹정부 출범후 첫 대규모 행사  
“양국 관계개선 적극 협력” 성명

이기우 기자

입력 2022.05.31 03:00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한국 측 경제계 인사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측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충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연합뉴스

한·일 재계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계 교류 행사를 열었다. 올해 54회째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양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다.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양국에서 279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170명, 일본에선 109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일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한국 측 행사를 주최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몇 년간 복합적인 정치, 외교 갈등이 큰 교훈이 돼 (한일 기업가들 사이에는) 시간 낭비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겼다”며 “이제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취임 축하를 위해 예방했을 때 윤 대통령이 ‘지금은 한·일 관계가 전후 가장 냉랭한 시기지만 가장 관계가 좋았던 시기로 되돌려보자’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양국 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윤 회장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이와타 가즈치가 경제산업대신 정무관(차관급),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일 경제계 교류는 올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2018년부터 중단된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고, 무역협회도 6월 3년 만에 ‘도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 7월에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단이 방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 (<https://www.chosun.com/>)



## 새정부 출범 후 첫 '한·일 경제인회의'... '관계 회복'에 초점

서울-도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개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속 한·일 공동대응 논의  
“미래 협력 위해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하자”

윤희훈 기자

입력 2022.05.30 15:15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내빈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뒤에 화면에는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일본측 내빈들이 보인다. (왼쪽부터) 이희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뉴스1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양국의 경제인들은 한·일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들은 서울과 도쿄에서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인들이 경제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는 양국에서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많은 참석 인원”이라며 “앞으로의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과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미토 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윤 회장은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은 이어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말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 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5/30/HZOIMMGHOJDFTJN16B2PHT4IPA/](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5/30/HZOIMMGHOJDFTJN16B2PHT4IPA/))

# 한일 경제인 “양국 관계 악화 더 방지할 수 없다… 경제 연계 확대”

이윤정 기자

입력 2022.05.30 17:20



한일 경제인이 양국간 관계 악화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향후 경제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일경제협회는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4년 후인 196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양국 경제계의 대표적인 교류 행사로,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간 대규모 경제계 교류 행사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양국 경제인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고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양국 경제인들은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인은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연계 확대의 경우,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일 경제인은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비즈 이윤정 기자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5/30/LB6DPHCMCFGSDHE4K4SO4DJOGA/>)

## 새정부 출범 후 첫 ‘한·일 경제인회의’...“경제공동체 염두에 뒀다”

중앙일보 | 입력 2022.05.30 18:23



30일 한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삼양홀딩스]

한국과 일본 경제인 270여 명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간 대규모 경제계 교류 행사다.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이 행사는 1969년 시작돼 정치적 갈등이나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해마다 빠지지 않고 열렸고, 올해는 예년보다 참석 규모가 컸다.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10여 명이 자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축사를 했다.

## “한·일 양국 경제공동체 염두에 뒀야”

김윤 회장은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과거사를 둘러싼 매우 복잡한 현안들이 있고 오랜 갈등으로 남아 있기에,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기를 갈망한다”며 “양국의 경제인들이 그 선두에 서서 민간 협력을 잘 이끌어 가고, 양국 정치·외교 분야의 지원이 밑바탕이 돼 예측 가능성을 열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불리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나 지난 10일 하야시 외무상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협의대표단이 지난달 일본에 왔을 때도 기시다 총리에 대해 ‘해결을 꾀하겠다’는 뜻이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한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삼양]

## “새 정부 출범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기대”

기조연설을 맡은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일본 감독과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브로커’를 통해 배우 송강호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을 거론하며 “한·일 문화 교류의 값진 성과로 전 세계에 기억

될 것”이라고 평한 뒤 “이러한 활동들이 산업 분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면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무비자 방문 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 및 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경제 연계의 새로운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도 담았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며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 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 한일 최고경영자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논의

송충현 기자

입력 2022-05-31 03:00 | 업데이트 2022-05-31 03:00

서울 도쿄 연결 온라인 경제인 회의  
김윤 회장 “공존공영 위해 손잡아야”

한일경제협회는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는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처음 열린 뒤 매년 회의를 이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부터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가격 급등,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고 쉽지 않다”며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경제인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둬 왔다”면서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사설] 윤정부 첫 한일경제인회의, 3년간 악화된 교역에 물꼬 트길

입력 : 2022.05.31 00:02:01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30일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 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양국 교역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회의는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처럼 지난 3년간 경색됐던 양국 경제 교류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큰 진전이다.

한일 경제인들은 1969년부터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 위기 등에도 중단 없이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 관계가 냉각되며 실질 협력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회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 등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으로 한일 관계 복원은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 선언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소부장에 대한 대일 수입 의존도 하락은 미미한 가운데 양국 교역규모는 20조원(10%)가량 줄어들었다. 양국이 승자 없는 전쟁을 3년간 이어온 셈이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이날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했는데 옳은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의 교류 복원은 더욱 절실해졌다. 과거사 문제로 인해 최악의 상태에 빠진 양국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양국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가 정체된 교역의 물꼬를 트고,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5/478173/>)

## 韓日재계 "탄소중립·고령화 해법 함께 찾자"

새 정부 첫 한일경제인 회의  
서울·도쿄서 온오프라인 개최  
양국 기업인 260여명 참석

"무비자 복원해 인적교류 확대"

이충복, 이윤재 기자 | 입력 : 2022.05.30 17:24:16 수정 : 2022.05.30 19:39:51

0



△30일 한일경제협회는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었다. 왼쪽부터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김희용 TYM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종선 포스코 홀딩스 사장. [김효영 기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 명이 양국의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30일 제54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호텔오쿠라도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올해는 한일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기업인이 대규모로 만난 자리이다 보니,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일 간 관계 경색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으나, 올해는 양국 모두 교류·공존·신뢰 등을 강조하며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일·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이 양국 단장으로 참여했다.

김윤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래 번영을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산업·투자·금융·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양국이 고령화, 저출산,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회장은 회의 휴식 시간 중 매일경제와 만나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비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인적교류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만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용되던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은 2020년 3월부터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사사키 회장도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사키 회장은 "양국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며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 배우 송강호와 함께 만든 영화 '브로커'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문화 교류의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이런 교류가 산업 분야에서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163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일경제인회의는 경제 연계 확대, 상호 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3년 한국에서 열린다.

출처 : 매일경제 이축복 기자 / 이윤재 기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5/477624/>)

## “한일 관계 악화, 더 이상 방치 안 돼” 양국 경제인, 교류 물꼬 트기 ‘활발’

f t s b blog 0

입력: 2022-05-30 17:44 | 수정: 2022-05-30 17:57

三十一

“세계 경제 엄중할수록 양국 협력이 위기 극복의 힘”

54회 한일경제인회의서 한일 경제인 260여명 의기투합

김윤 회장 “양국 협력은 미래 위해 선택 아닌 필연”



###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 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 번째), 신동빈(오른쪽 네 번째) 롯데 회장, 구자열(왼쪽 세 번째)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 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재계가 양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규모 경제인 회의를 열어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이후 악화했던 양국간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올해 일본 경제단체들과 3~4년 만에 회의를 재개하며 양국 기업간 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는 한·일 기업 최고경영자(CEO) 260여명이 화상회의로 만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며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이날 개최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미중간 대립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붕괴된 공급망 문제, 탄소중립 실현 등에 대응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국 기업인들은 공동성명을 내 “한미간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에너지, 탈탄소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청소년 등 차세대 인재 교류에 힘쓰기로 했다.

개회식에서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의 위기는 한·일의 경제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며 “양국 경제인들이 선두에 서서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가고 양국 정치, 외교 분야의 지원이 밑바탕이 돼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과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며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민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오후라호텔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양국 간 유대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크게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자리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등 새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함께 대응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그룹 의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의 한일 교류 확대 노력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다음달 22~23일 국내 수출기업들과 함께 2019년 이후 3년만에 일본 도쿄에서 한국 상품 상담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이 행사는 일본 최대의 한국 상품 전시회로, 2002년부터 100여개의 국내 기업들과 일본 바이어들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7월초 서울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과 한일재계회의를 열어 양국 기업들의 협력 확대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월쯤 일본상의회와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를 다시 가동한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당초 최태원 회장이 일본 상의 창립 100주년 행사에 맞춰 6월 말 일본을 방문하려 했으나 이 행사가 9월로 미뤄지고 일본 상의 회장이 11월 새로 교체됨에 따라 최 회장의 일본 방문은 향후 이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일한의원연맹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지리적, 경제구조적 유사성이 있는 양국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김포·하네다 비행편도 재개된다고 하니 그간 막혀 있던 한일 관계에 따뜻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신문 정서린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30500196>)



## 尹 정부 첫 한일경제인회의..."한일 관계 개선·협력 기대"

머니투데이 | 최민경 기자

2022.05.30 15:06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단장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최민경 기자

한일 간 대규모 경제인 회의인 한일경제인회의가 한국과 일본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미쓰비시상사 등 한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260여명은 30일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과 도쿄를 연결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도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왔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엄중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과 일본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포스트 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회장을 단장으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회장,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홀딩스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우에다 카츠히로 오오가키정공 회장, 주한일본기업 등 116명이 참석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3013472395130>)

## 새 통상질서 '핵심' 떠오른 한일관계...출발점은 '역지사지'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경제인 회의  
한일경제협회, 정부 관계 개선 움직임 기대  
경제연계 확대·상호교류 증진 등에 노력 합의

등록 2022-05-30 오후 5:25:52  
수정 2022-05-30 오후 9:15:25

가 가

[이데일리 경제영 기자]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역지사지’. 한·일 경제인들이 30일 열린 제 54차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입을 모아 강조한 키워드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각국 정부가 서로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경제인들의 바람이 담긴 단어라는 분석이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온라인과 동시에 한일 경제인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경제인 회의는 양 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남달랐다. 새 정부가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69년 시작된 한일 경제인 회의는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여러 어려움에도 교류 등불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매년 거르지 않고 열렸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 모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최근 정부 측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린 지난달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경제인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제재 등으로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양국 협력과 연계가 위기 극복에 힘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진행된 신산업무역회의에서 나온 ‘역지사지’·‘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제언을 바탕으로 공동 성명을 채택했으며, 탄소중립과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동시에 제3국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과거사를 둘러싼 복잡한 현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고 한·일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 과제 해결과 미래 번영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 경제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협력부터 하자”고 덧붙였다.

일본 측 회장을 맡고 있는 사사키 미키오 전 미쓰비시 회장은 “한·일관계 개선 기미가 보이면서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기대를 표한다”며 “협회 활동의 3대 기둥인 경제·인재·문화 교류 사업을 지속하고 청소년·지역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연계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 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회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국 정부 관계자 역시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를 풀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강창일 주일 한국 특명전권대사는 “한·일은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이웃으로 한일 경제협력을 정부가

발목 잡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양국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협력 방향으로 △통상협력 체제를 통한 다자 이슈 대응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와타 가즈치카 일본 경제산업대신정무관은 “건전한 한·일 관계는 국제질서 구축과 세계 평화 번영에 불가피하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좋은 관계로 되돌리고자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은 조선 시대 200년간 동안 이어진 ‘조선통신사’와 양국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세계는 크게 변하고 있고 양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사회에서 발휘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세계 공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겸 ㈜LS 의장은 최근 급속하게 위축된 통상 환경에 주목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를 공통적으로 보유한 양국이 더욱 굳게 손을 잡을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십년 통계 보면 우호적 한·일 관계가 양국 경제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 △수소를 비롯한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한·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으로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열렸으며 한국 측에선 김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163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 등 116명이 자리했다.



신동빈(오른쪽)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출처 : 이데일리 경제영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3366632334168&mediaCodeNo=257>)

## 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양국 협력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0 14:53 수정 2022.05.30 14:53



지난해 11월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회 한일 경제인 회의 현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일경제협회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30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도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 회의이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이번 경제인 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산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4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류 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지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등 116명이 참석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영권 기자kim091@fnnews.com

## “어려울 때 서로 손잡자”...한일경제인, 경제연계 확대·상호교류 증진 합의

2022.05.30 17:22

제 54회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경제인 280여명 참여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이휘령(왼쪽부터)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한국경제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일경제협회는 30일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를 표명하며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에 합의했다.

이날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롯데그룹, 포스코홀딩스 등의 기업인 163명, 일본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16명이 참가했다.

김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의 새 정부 등장과 우호 분위기 조성도 전환의 계기겠지만 세계 시장 불확실성 위기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연계가 선택 아니라 필연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며 “한일의 번영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과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이자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할 중요한 경제동반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상 협력 체제를 통한 다자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핵심 부품 공급망을 협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고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협회는 이같은 양국의 인식과 신산업무역회의의 ‘역지사지’,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이들은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며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폭넓은 경제교류뿐 아니라 문화교류 등에 힘쓰기로 하고, 양국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한일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addressh@heraldcorp.com

# 아주경제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경제협력 새로운 단계 논의"

윤동 기자 | 입력 2022-05-30 14:50

☞ ☞ 가 가



[사진=윤동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경제인회의가 개최됐다.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양국 경제 협력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단계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30일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이날 서울과 도쿄 간 온라인을 통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이번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포스트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4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회장을 단장으로 안 통상교섭본부장(축사), 강 주일한국대사(축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 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축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 원연맹 회장(축사),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기조연설·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가즈히로 부회장(오가키 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지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게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구로이시 구니노리 자문위원회 이사(마루베니 고문), 주한일본기업 등 116명이 참석했다.

한편 양국 경제인들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 아시아투데이

## 한일경제인들 "영화 '브로커' 한일문화교류 상징...더 이상 관계악화 안돼"

기사승인 2022. 05. 30. 17:52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소공동 롯데호텔서 개최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60여명 참석  
일본 경제인들 화상으로 참석해 협력의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엄중한 한일 관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환영한다.”

한일 경제인들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과 상호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인들은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행사다.이번 회의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가 거론되기도 했다. 브로커는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아이유), 배두나, 이주영 등 한국 배우들이 연기한 작품이다. 일본 측 사회를 맡은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는 “한일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기쁜 소식”이라며 “한일경제인회의 직전에 수상 소식이 전해져 더욱 뜻깊다”고 언급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과 산업,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앞장서야 한다”며 “거창한 구호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적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강화한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과 양국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기업인이 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무비자 방문제도를 조속히 복원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신산업, 에너지 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Ji00516@asiatoday.co.kr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 브릿지경제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韓日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논의

입력 2022-05-30 15:22 | 신문게재 2022-05-31 18면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식 모습 (사진=연합)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30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과 일본 호텔 오후라도쿄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했다.

‘한일경제인대회’는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 회의이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국경제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이 일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면서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포스트 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우에다 가츠히로 오가키정공(주) 회장·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 ‘한일관계에서 배우는 아메노모리 호슈(에도시대의 외교관)의 정신’, 이경상 KAIST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 한일경제인들 "더이상 관계악화 안돼" 협력다짐...'브로커' 공통화제로(종합)

송고시간 | 2022-05-30 17:28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롯데 신동빈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60여명 참석

한일 협력 '브로커' 송강호 칸영화제 수상에 "한일 문화교류 상징 기쁜 소식"

"엄중한 한일 관계가 경제활동에 영향...정부 대화 진전 기대" 공동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희원 기자 =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며 한일 경제협력 확대와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촉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양국 경제인 간 대규모 교류 행사로, 2019년 무역분쟁 이후 얼어붙은 양국 간의 경제교류에 다시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사말 하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30 utzza@yna.co.kr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000070]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002710]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30 utzza@yna.co.kr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과 산업,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앞장서야 한다"며 "거창한 구호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적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강화한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과 양국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기업인이 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무비자 방문제도를 조속히 복원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신산업, 에너지 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양국 민관협의체가 사업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이를 통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가 거론되기도 했다.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를 비롯해 강동원, 이지은(아이유), 배두나, 이주영 등 한국의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며 양국 영화인들이 협력한 작품이다.

일본 측 사회를 맡은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는 "한일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기쁜 소식"이라며 "한일경제인회의의 직전에 수상 소식이 전해져 더욱 뜻깊다"고 언급했다.



**일본측 발언 듣는 김윤 한국경제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국경제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이 일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5.30 utzzza@yna.co.kr

한일경제인들은 양국 정부 간 대화 진전을 촉구하고, 경제협력과 상호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엄중한 한일 관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고 환경과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며 "세계정세 변화와 코로나19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철선 기자 kcs@yna.co.kr

#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경제인 교류...'한일경제인회' 개최

이윤구 기자 | 승인 2022.05.30 14:33 | 댓글 0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국경제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회의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5.30 utzzza@yna.co.kr

(서울=연합뉴스포맥스) 이윤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난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양국간 경제연계 확대와 상호교류 증진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경제협회는 30일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80여명을 서울과 도쿄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이날 한일 양국 경제인은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 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엄중한 양국 관계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최근 양국 간에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은 만큼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래의 번영을 위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며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하자는 것이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로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포스트 코로나 향해 양국 간 협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에 대한 관심과 성원도 당부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구 회장은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를 위한 무비자 방문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 및 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3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 구자열, 한일 정부·기업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서 기조연설...무비자 복원 강조

입력 : 2022-05-30 17:08: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30일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회장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 확립'이란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구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수소 등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주문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우선 한일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 무비자 방문 제도를 조속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한일 양국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기나긴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한일 간 기업인들의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산업 협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일 양국은 수소와 암모니아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한일 양국이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각각 운영하는 한국의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와 일본의 '수소 밸류체인 추진협의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의 정책 기구가 협력한다면 양국 기업에 더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 확립'이란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아울러 구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구 회장은 "기업들이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는 있지만, 과거의 장벽을 한꺼번에 허물기에는 경제인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한일 양국의 민관협의체가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이를 통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국 최고경영자 260여명, 협력 방안 논의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은 이날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란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지난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중단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 경제인 회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000070)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구자열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002710)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306200)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163명이 참가했다.

김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해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회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중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사진 왼쪽부터)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일경제협회)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지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등 116명이 참석했다.

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둬 왔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한·일 기업인 "경제연계 확대해야"...공동성명 채택

등록 2022.05.30 17:58:47

가 가



[서울=뉴시스]30일 한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에서 양측 내빈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사진=한일경제협회 제공) 2022.5.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30일 환경·에너지, 저출산 고령화 등 상호 공통과제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양국이 경제연계와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국 기업인은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내용의 이번 성명에서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의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기업인들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며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시스]30일 한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에서 양측 내빈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창일 주일한국대사,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오카 모토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사진=한일경제협회 제공) 2022.5.30 photo@newsis.com

이날 행사에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과거사를 둘러싼 매우 복잡한 현안들은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고 한일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과제 해결과 미래의 번영을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협회의 3대 활동인 경제교류, 인재교류, 문화교류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당부했다.

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인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이 각각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윤 단장 등 163명이, 일본 측에서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16명이 참가했으며 내년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pj76@newsis.com

## 尹정부 첫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공존공영 위해 손 잡아야”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테마..양국 협력 강조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2/05/30 [16:42] < 본문듣기 >



**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30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 회의이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포스트 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4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축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설/ LS 의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 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축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축사),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기조연설/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쿠로이시 쿠니노리 자문위원회 이사(마루베니 고문), 주한일본기업 등 116명이 참석했다.

문홍철 기자 break9874@naver.com

# 한일 경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논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식약일보 ✉ | 입력 : 2022/05/30 [15:56]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30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 회의이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라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면서,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포스트 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4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축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설/ LS 의장), 류 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축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축사),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기조연설/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쿠로이시 쿠니노리 자문위원회 이사(마루베니 고문), 주한일본기업 등 116명이 참석했다. 강경남 기자

출처 : 식약일보 ([http://www.kfdn.co.kr/sub\\_read.html?uid=57002](http://www.kfdn.co.kr/sub_read.html?uid=57002))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논의

2022.05.30 17:33 by 임한희



▲30한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에서 양측 내빈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촬영을 했다. 좌로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설, LS 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축사),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한국측 단장, 개회인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30일,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하여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 회의이다.

한국 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식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한일 경제인들은, 본 경제인 회의 등의 장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세계를 무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서, “정부가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한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빈축사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쿄 회의장에 참석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한일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면서, 탄소중립 실현·저출산 고령화 대응·포스트 코로나 등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개최된 이번 제54회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축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설/ LS 의장), 류 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축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축사),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기조연설/스미토모상사 특별고문), 우에다 카츠히로 부회장(오오가키정공 회장), 고가 노부유키 부회장(노무라홀딩스 명예고문), 이미즈 하루히로 부회장(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이케다 마사키 부회장(호텔오쿠라도쿄 회장), 코지 아키요시 부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 무라야마 료 부회장(도레이 고문), 이와타 케이이치 자문위원회 부회장(스미토모화학 사장), 쿠로이시 쿠니노리 자문위원회 이사(마루베니 고문), 주한일본기업 등 116명이 참석했다.

더퍼스트미디어 임한희 기자 dain291@daum.net

매일경제

# [포토] 한일경제인회의

김호영 기자 | 입력 : 2022.05.30 16:30:45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고있다. [김호영 기자]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오찬회가 열리고있다. [김호영 기자]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고있다. [김호영 기자]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고있다. 한일 경제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뒷편 화면에는 일본 경제인들이 일본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이 비춰지고있다. 2022.5.30 [김호영 기자]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고있다. 한일 경제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뒷편 화면에는 일본 경제인들이 일본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이 비춰지고있다. [김호영 기자]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일경제협회·산업기술협력재단 등이 주최한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 각각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진행됐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이 경제 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올해 행사에는 2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 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함께 했다.

[매일경제=김호영 기자]

# "한일 관계개선 힘 모으자"...구자열, 민관협의체 제안

입력 2022-05-30 15:38:40 수정 2022.05.30 18:09:45 김기혁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무협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한일 양국의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구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협회 주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민관 협의체가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비자 방문 제도의 조속한 복원과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산업 협력 확대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000070)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게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여전히 한일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머니투데이

# 구자열 무역 회장 "한일 민관협의체 만들고 수소·에너지 협력하자"

머니투데이 | 최민경 기자

2022.05.30 16:16



구자열 무역협회장이 한국과 일본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구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민관협의체가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민관협의체 구성 외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무비자 방문제도 복원 △양국 간 전력 공유를 통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수소산업 육성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한일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 무비자 방문제도를 조속하게 복원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일간 기업인들의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신산업,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매우 많다"며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산업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소와 암모니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 회장은 "최근 한일 양국은 수소와 암모니아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국의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와 일본의 '수소 밸류체인 추진협의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의 정책기구가 협력한다면 양국 기업에 더욱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한일 양국 간 전력을 공유하자고 제언했다. 구 회장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전력을 값싸게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경제인회의로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한일 공동 에너지사업 방안, 한일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3016123546856>



## 한일경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공동성명 발표

머니투데이 | 최민경 기자

2022.05.30 17:20



왼쪽부터 이희령 세아제강주 부회장, 이만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설, LS 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축사),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한국측 단장, 개회인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포스코그룹 회장, 전주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사진제공=한일경제협회

한일경제협회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협회에서 한일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고 엄중한 양국 관계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며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한 28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3016305175494>)

이데일리

##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김윤·구자열·신동빈 등 참석

양국 기업인 260여 명 참석  
소통·경제협력 방안 등 논의

등록 2022-05-30 오전 11:00:01  
수정 2022-05-30 오전 11:00:01

가 가



한일경제인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 삼성물산 회장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일 경제인회의가 30일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서 양국 경제인이 각각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개최했다.

올해로 54회째를 맞은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소통 및 경제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을 통해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 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향후 두 나라의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이날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 하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 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며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64806632334168&mediaCodeNo=257>)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글로벌 밸류체인 대책 등 논의



서울-도쿄 화상 연결...양국 경제인 260여 명 참석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화상으로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전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해마다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 해보다 많은 26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운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게이이치 스미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안 본부장은 코로나19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향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박수진 기자(<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31MW081031500030>)

## 구자열 무역협회장, “韓日 정부·기업 민간협의체 구성해야”

2022.05.30 16:02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

양국 무비자 입국·수소협약체 협업 제안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한국·일본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비자 입국제도를 복원하고 양국 간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기구 간 협업 등도 경제 협력 방안으로 제시했다.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구자열 회장은 “디지털화 가속,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양국도 변화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다”며 “경제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양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지만 과거의 장벽을 한꺼번에 허물기에 경제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의 민간협약체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회장은 “한일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며 “최근 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기나긴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교류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이 탄소중립과 글로벌 원자재 및 에너지 대란 등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수소와 암모니아 도입을 대폭 확대 도입하기로 한 만큼 한국의 민관협약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J-ALIA)와 일본의 수소밸류체인추진협약회(J-VCH)의 협업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양국의 정책 기구 협업으로 더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럴드경제 addressh@heraldcorp.com

# 54번째 韓日 경제인회의 개최...미래 협력방안 논의

발행일 : 2022-05-30 11:00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인들이 54번째 한일 경제인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 교류 장이다. 코로나 등으로 양국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을 병행해 매년 열렸다. 올해로 5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약 260명 경제인이 참석했다. 앞으로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국 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함께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이와타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도쿄에서 각각 참석해 축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구자열 무역협회장 "무비자 방문제도 조속 복원돼야"

기사입력 2022-05-30 16:40 | 최종수정 2022-05-30 16:43



올해 양국 경제인 260여명 참석

구자열 무역협회장 기조연설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오늘(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일본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행사 주제는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 밸류체인(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

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를 위한 무비자 방문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 및 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 구자열 무역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제공)

차민아 tani221@naver.com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글로벌 밸류체인 대책 등 논의

송고시간 | 2022-05-30 11:00

日本語

中文

| 서울-도쿄 화상 연결...양국 경제인 260여명 참석



지난해 11월 열린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해마다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운 삼양홀딩스[000070]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002710]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 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안 본부장은 코로나19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향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회원 기자 [heel1@yna.co.kr](mailto:heel1@yna.co.kr)

## '한일 경제인 회의' 열려...가치사슬 변화 대응 논의

등록 2022.05.30 11:00:00 | 수정 2022.05.30 12:51:43



### 기사내용 요약

한일경제협회 주최 행사...260여명 참석  
통상교섭본부장 "미래지향적 협력 지원"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일경제협회·산업기술협력재단 등이 주최한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 각각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진행됐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이 경제 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올해 행사에는 2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 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 주제는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 밸류체인(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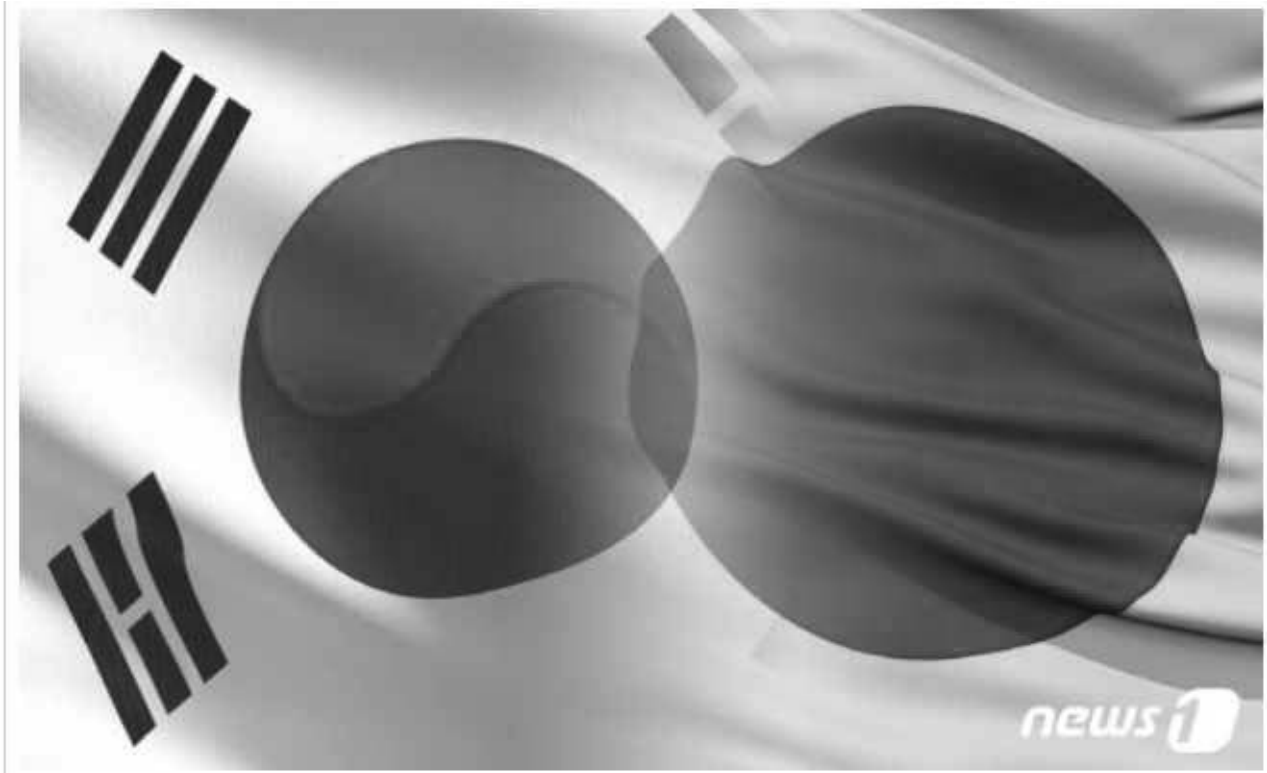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향후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 한일 경제인,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밸류체인' 협력 강화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양국 기업인 260여명 참석해 경험 방안 논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05-30 11:00 송고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가운데,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과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양국 기업인 260여명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연결돼 개최됐으며 올해로 54 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 아래,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이와타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도쿄에서 참석해 축사에 나섰다.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나혜윤 기자 [freshness410@news1.kr](mailto:freshness410@news1.kr)



## 구자열 무협 회장 "韓日 관계 개선에 기업인 나서야...민관협의회 만들자"

㉓ 전다윗 기자 | ㉓ 승인 2022.05.30 17:15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무협)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30일 "한·일 양국이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서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도 글로벌 변화의 흐름을 피해 갈 수 없다.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인들도 세계적 전환기를 맞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를 위한 무비자 방문 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 및 기업 공동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경제 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 병행을 통해 매년 개최됐다. 올해 회의는 한국 롯데호텔과 일본 오쿠라 호텔 간 온라인 연결을 통해 진행됐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전다윗 기자 David@newsworks.co.kr

# "한일 경제, 새로운 스테이지로"...한일경제인, '경제연계 확대·상호교류 증진' 공동성명

입력 2022.05.30 17:20 수정 2022.05.30 16:40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좌로부터 이휘령 세아제강(주) 부회장, 이만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설, LS 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한국측 단장, 개회인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종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병락 TCC스틸 회장 ©한일경제협회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한 28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해마다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운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자리했다.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이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 확립'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편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일 관계의 이정표 확립'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구 회장은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를 위한 무비자 방문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 및 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 한일 경제인 "더이상 양국관계 악화 안돼" 한목소리..."상호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30 14:49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신동빈 롯데회장 등 양국경제인 260여명 참석**  
**글로벌 밸류체인 대책 및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 플랫폼 구축방안 등 논의**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운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해마다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운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 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안 본부장은 코로나19로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향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경제([www.ekn.kr/web/view.php?key=20220530010004927](http://www.ekn.kr/web/view.php?key=20220530010004927))

## 한일경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공동성명 발표

2022.05.30 17:43 by 임한희

[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한국대표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30일,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제3국의 프로젝트를 확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한 28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임한희 dain291@daum.net



# 한일 재계,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협력방안 강화키로

✎ 이철원 기자 | ☎ 입력 2022.05.30 15:39 | ㄹ 댓글 0

## 양국 기업인 260여명이 참석, 소통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측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철원 기자] 한국과 일본재계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30일 한일경제협회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서울과 도쿄를 온라인 연결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테마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진행했다.

양국 경제인은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 많은 어려움에도 교류의 등불을 지켜나간다는 신념으로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 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 하에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함께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청원 기자 6352seoul@hanmail.net

# 신아일보

## 구자열 무역협회장 "한일 경제교류협력 기업인 힘 모아야"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5.30 16:42 | 댓글 0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서 교류확대 강조...신동빈 참석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이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 확립'을 주제로 기조 연설하는 모습. [사진=무역협회]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한일 양국의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올해 5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경제인 26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 논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재개를 위한 무비자 방문제도의 조속한 복원 △양국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확대 △양국 정부·기업 공동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취지원 기자 frog@shinailbo.co.kr

# 한일경제인,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 할 수 있기를 기대"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 에너지 안전보장 등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  
제54회 한일경제회의의 성료

김한빈 기자    입력 2022.05.30 17:20



미취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설, LS 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축사),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한국측 단장, 개회인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포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사진=한일경제인회의 © 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 =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30일 열린 제54회 한일경제회의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일 경제협회는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축사), 미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축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일본측 단장, 개회인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 원연맹 회장(축사), 오카 모토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기조연설) 사진=한일경제인회의©열린뉴스통신ONA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한 28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김한빈 기자 news@onews.com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구자열 무협 회장 "한일 민관협의체 만들고 수소·에너지 협력 하자"

문현지 기자 | 승인 2022.05.30 17:43 | 댓글 0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이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 확립'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30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구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화상으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민관협의체가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민관협의체 구성 외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무비자 방문제도 복원 △양국 간 전력 공유를 통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수소산업 육성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한일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 무비자 방문제도를 조속하게 복원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일간 기업인들의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신산업,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매우 많다"며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산업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소와 암모니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 회장은 "최근 한일 양국은 수소와 암모니아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국의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와 일본의 '수소 밸류체인 추진협의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의 정책기구가 협력한다면 양국 기업에 더욱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한일 양국 간 전력을 공유하자고 제언했다.

구 회장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전력을 값싸게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경제인회의로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주일한국기업 등 163명이 참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한일 공동 에너지사업 방안, 한일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처 : 워크투데이 김송이 기자 [webeconomy@naver.com](mailto:webeconomy@naver.com)



## 한일경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공동성명 발표

김송이 기자 webeconomy@naver.com | 등록 2022.05.30 18:58:58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 30한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회식에서 양측 내빈들이 화상으로 연결해 기념촬영을 했다.

좌로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기조연설, IS 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축사),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한국측 단장, 개회인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2022.05.30 (출처: 한일 경제협회)

[웨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한국대표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30일,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한국대표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30일,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한 280여명의 양국 경제인들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김송이 기자 webeconomy@naver.com

## 한일경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공동성명 발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이운성 기자 dhns9114@naver.com | 승인 2022.05.30 16:33 | 댓글 0



©대한뉴스

[대한뉴스=이운성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한국대표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30일,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운성 기자 dhns9114@naver.com

## 한일경제인 “양국 경제협력·교류 강화해야”

✎ 김민준 기자 | ⌚ 입력 2022.05.30 16:25 | 📄 댓글 0

### 54회 한일경제인회 열고 공동성명 발표



30일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제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경제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 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과거사 문제 등으로 골칫거리인 관계에 놓여 있는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이와는 별개로 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경제협회(김운 삼양홀딩스 회장)와 일본경제협회(사사키 미키오 회장)는 3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양국 경제인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고,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 한일경제인회는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통해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와 에너지 안전보장 등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민준 기자 minjun21@naver.com

## 협력·공유 강화 약속으로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 열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5-30 16:31:26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5월 30일(월),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코로나 등으로 양국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 병행을 통해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 하에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함께 하였는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이와타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차관급, 중의원 4선)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13선)은 도쿄에서 각각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출처 : 이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8292711697>)

## 韓日 경제인, 경제연계 확대·상호교류 증진 등 합의

✎ 이상훈 기자 | ⌚ 입력 2022.05.30 17:42 | 💬 댓글 0

한일경제협회 행사 개최...한일경제인 260여명 참석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양홀딩스

[농업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은 30일,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도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양국 간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공통인식 하에 ‘역지사지’,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 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성명서에 담았다.

양국 경제인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 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 더 중요 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해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이 경제 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올해 행사에는 2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운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 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다음 제55회 한 일경제인회의는 2023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이상훈 기자 jianhs@thekpm.com



##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 협력·공유 강화 약속

기사입력: 2022-05-30 15:10:15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양국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코로나 등으로 양국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 병행을 통해 매년 개최돼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국기업 대표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기업 대표로는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스마토모화 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 하에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함께했는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이와타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차관급, 중의원 4선)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13선)은 도쿄에서 각각 참석해 축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더 이상 관계악화 안돼” 협력 다짐



기사입력 2022-05-30 18:49:19

폰트크기 변경 A A

**롯데 신동빈 회장 · 구자열 무협 회장 등 양국 260여명 참석**

**한일 협력 ‘브로커’ 송강호 칸영화제 수상에 “문화교류 상징 기쁜 소식”**

**엄중한 한일 관계가 경제활동에 영향...정부 대화 진전 기대 공동성명**

[e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렸다. 양국 경제인들이 화상으로 만나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며 한일 경제협력 확대와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촉구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와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이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무협 제공

한일 경제인들은 정치적 갈등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69년부터 매년 한일경제인회의를 가져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작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한일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드러냈다.

우리 기업 대표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운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와타 사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누카가 후쿠시로 일의원연맹 회장 등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과 양국 청년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한일 기업인이 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무비자 방문제도를 조속히 복원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신산업, 에너지 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양국 민관협의체가 사업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이를 통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가 거론되기도 했다. 참고로 브로커는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를 비롯해 강동원, 이지은(아이유), 배두나, 이주영 등 한국의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며 양국 영화인들이 협력한 작품이다.

한일경제인들은 양국 정부 간 대화 진전을 촉구하고, 경제협력과 상호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일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엄중한 한일 관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고 환경과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며 “세계정세 변화와 코로나19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간 대화가 진전돼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gw89@dnews.co.kr

# 무역협회장 구자열,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 2022-05-30 20:20:42



▲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과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겸 삼양홀딩스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 회의에서 일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두 국가 정부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구자열 회장은 30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며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과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겸 삼양홀딩스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일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교류하는 대규모 행사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구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민관협의체가 기업의 사업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두 나라 사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함께 전력 공유를 통한 슈퍼그리드 구축, 수소산업 육성 협력, 무비자 방문제도 복원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엄중한 한일 관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 대화가 진전돼 두 국가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바란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26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포함해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자리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 이와타 케이이치 스마토모화학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세한 캐논코리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정문 기자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mailto:question@businesspost.co.kr)

## [포토] 서울·도쿄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허문찬 기자

입력 2022.05.30 17:52 | 수정 2022.05.31 00:08 | 지면 A28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30일 서울 롯데호텔과 일본 도쿄 호텔 오키라에서 각각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왼쪽부터)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등이 롯데호텔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mailto:sweat@hankyung.com)

## [포토]한일 경제인 화상으로 만나

등록 2022-05-30 오후 3:45:45  
수정 2022-05-30 오후 3:45:45

가 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5696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한일 경제인,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밸류체인' 협력 강화

등록 2022-05-30 오후 3:45:28

수정 2022-05-30 오후 3:45:28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5040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경제인 회의' 열려

등록 2022-05-30 오후 3:45:26

수정 2022-05-30 오후 3:45:2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3728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尹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경제인 회의'... "양국 경제공동체 염두"

등록 2022-05-30 오후 3:45:24

수정 2022-05-30 오후 3:45:2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2744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박수치는 구자열 무역협회장-김윤 한일경제협회장-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록 2022-05-30 오후 3:40:21  
수정 2022-05-30 오후 3:40:2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자열 무역협회장과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왼쪽부터)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120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이야기 나누는 구자열 무역협회장-김윤 한 일경제협회장

등록 2022-05-30 오후 3:38:48  
수정 2022-05-30 오후 3:38:48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과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9792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록 2022-05-30 오후 3:35:30

수정 2022-05-30 오후 3:35:3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7824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윤 회장

등록 2022-05-30 오후 3:35:50

수정 2022-05-30 오후 3:35:5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8152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입장하는 김윤-신동빈-이인용

등록 2022-05-30 오후 3:32:55  
수정 2022-05-30 오후 3:32:5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오른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5856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윤 회장

등록 2022-05-30 오후 3:31:58

수정 2022-05-30 오후 3:31:58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5200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록 2022-05-30 오후 3:31:44  
수정 2022-05-30 오후 3:31:4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48726632334168&mediaCodeNo=257>)

이데일리

# [포토]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록 2022-05-30 오후 3:31:39

수정 2022-05-30 오후 3:31:39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 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45446632334168&mediaCodeNo=257>)

이투데이

# [포토]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입력 2022-05-30 16:02

조현호 기자 구독하기



(조현호 기자 hyunho@)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이투데이 조현호 기자 (<https://www.etoday.co.kr/news/view/2139014>)

이투데이

## [포토]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윤 회장

입력 2022-05-30 16:03



(조현호 기자 hyunho@)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이투데이 조현호 기자 (<https://www.etoday.co.kr/news/view/2139016>)

# [포토] 54회 한일경제인회의

박동욱 기자 | 입력: 2022-05-30 17:36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박동욱기자 fufus@dt.co.kr

# 디지털타임스

## [포토] 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박동욱 기자 | 입력: 2022-05-30 17:46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dt.co.kr



## [포토] 박수치는 안덕근-김윤-구자열

박동욱 기자 | 입력: 2022-05-30 17:46



안덕근(오른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dt.co.kr

# [포토]화상으로 회의 진행한 한일경제인

최종수정 2022.05.30 15:57 기사입력 2022.05.30 15:57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 스틸 회장.

출처 :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3015572743988>)

## [포토]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김윤 회장-신동빈 회장-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종수정 2022.05.30 14:50 기사입력 2022.05.30 14:50



김윤(오른쪽) 한일경제인협회 회장과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 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3014500882645>)

## [포토]한일경제인회의 참석한 김윤 회장-구자열 회장-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종수정 2022.05.30 14:48 기사입력 2022.05.30 14:48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3014485773706>)

# [포토]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인협회장

최종수정 2022.05.30 14:47 기사입력 2022.05.30 14:47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3014475468943>)

# 일본측 발언 듣는 김윤 한국경제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

송고시간 | 2022-05-30 15:13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국경제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이 일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한일경제인회의의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송고시간 | 2022-05-30 15:10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모멘트]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이진욱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THE MOMENT OF YONHAPNEWS]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cityboy@yna.co.kr



# 인사말 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송고시간 | 2022-05-30 15:08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인사말 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송고시간 | 2022-05-30 15:08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인사말 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송고시간 | 2022-05-30 15:08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운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인사말 하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송고시간 | 2022-05-30 15:08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인사말 하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송고시간 | 2022-05-30 15:08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일본측 발언 듣는 김윤 한국경제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

송고시간 | 2022-05-30 15:13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국경제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이 일본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일본 도쿄 회의장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송고시간 | 2022-05-30 14:58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송고시간 | 2022-05-30 14:57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송고시간 | 2022-05-30 14:54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송고시간 | 2022-05-30 14:54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의 일본측 참석자들과 동시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2022.5.30

김주성 기자 utzzza@yna.co.kr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등록 2022.05.30 16:12: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왼쪽부터)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성홀딩스 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인사말하는 김윤 회장

등록 2022.05.30 16:12: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한일경제인회의

등록 2022.05.30 16:12: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측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기업 대표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 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대화하는 한국경제협회장-한국무역협회장

등록 2022.05.30 16:12: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왼쪽)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등록 2022.05.30 16:12: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인사말하는 김윤 회장

등록 2022.05.30 16:12: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대화하는 한국경제협회장-한국무역협회장

등록 2022.05.30 16:12: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왼쪽)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한일경제인회의

등록 2022.05.30 15:12:3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측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기업 대표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 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일본측 발언듣는 김윤 회장과 구자열 회장

등록 2022.05.30 16:12: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구자열 (왼쪽부터)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측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5.30.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한일경제인회의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2022-05-30 16:0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측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기업 대표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 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한일경제인회의

등록 2022.05.30 15:12:3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한국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일본측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기업 대표로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일본 기업 대표로는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쓰비시상사 고문, 코지 아사히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진아 기자 bluesoda@newsis.com

## 기념사진 촬영하는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내빈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022-05-30 14:59 송고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내빈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30/뉴스1

(왼쪽부터) 이회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운 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2022.5.30/뉴스1

이성철 기자 groot@news1.kr

## 한일경제인회의 참석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022-05-30 16:17 송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5.30/뉴스1

이성철 기자 groot@news1.kr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기념사진 촬영하는 내빈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022-05-30 15:00 송고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내빈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뒤에 화면에는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일본측 내빈들이 보인다. 2022.5.30/뉴스1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2022.5.30/뉴스1

이성철 기자 groot@news1.kr



## 기념사진 촬영하는 한일경제인회의 내빈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022-05-30 14:59 송고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내빈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뒤에 화면에는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일본측 내빈들이 보인다. 2022.5.30/뉴스1

(왼쪽부터) 이회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2022.5.30/뉴스1

이성철 기자 groot@news1.kr

# 인사말 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022-05-30 14:59 송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groot@news1.kr

## 김윤 한일경제인협회장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 2022-05-30 16:09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0>)

# 한일경제인회의 참석하 기업가들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2022-05-30 16:09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회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1>)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2022-05-30 16:08



김윤 한일경제협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화상으로 일본 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손봉락 TTC스틸 회장.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3>)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하는 김윤-신동빈-안덕근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2022-05-30 16:08



김윤(오른쪽) 한일경제인협회 회장과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 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4>)

# 한일경제인협회장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2022-05-30 16:08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7>)

# 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인협회장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2022-05-30 16:08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2>)



# 대화하는 김윤 회장 신동빈 회장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2022-05-30 16:08



김윤(가운데) 한일경제인협회 회장과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6>)

# 한일경제인회의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2022-05-30 16:08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 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64389>)